

왕치산, “소방수”에서 “호랑이 사냥꾼”으로

2014.8.6,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1998년 중국 최대 파산 사건 발생 당시, 왕치산(王岐山)의 오랜 친구 한 명이 이 사건 처리를 맡은 왕치산을 찾아가 충고를 건넸다.

이 친구는 왕치산의 동료였던 황장난(黄江南)이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은행가들이 엄청난 세력을 가졌고 정계 고위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해주었다. 또한 만약 이들에게 거액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면 그들이 수작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왕치산은 내 말을 막으며 반드시 사정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결단력 있고 강인한 사람이다.”

15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 부패척결의 “차르”인 왕치산이 맞이한 적수는 당시보다 훨씬 강력해졌다. 담배를 즐기고 기탄없이 말하기를 좋아하는 역사학자 출신 정치가 왕치산이 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 왕치산이 이끄는 중공중앙기율검사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and Inspection, 이하 기율위)는 저우용강(周永康)에 대한 조사에 정식으로 착수하였다. 국가안전을 담당했던 저우용강은 1949년 이래 부패 죄목으로 정식 조사를 받는 최고위 관료가 되었다.

2012년 하반기 왕치산이 기율위 서기에 임명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소 실망했다. 어려운 금융, 경제, 외교 문제를 처리해 온 그의 업적이 대단했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이 직책을 맡는 것은 재능 낭비처럼 느꼈기 때문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현재 66세인 그의 서열은 6위에 불과하다. 이 7명의 상무위원은 중국의 최고 권력층으로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18개월간 부패척결이 시행된 이후, 왕치산의 권력은 시진핑 바로 다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번 부패척결을 통해 거의 25만 명의 간부들이 낙마하였는데, 그중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도 39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척결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었다. 이번 부패척결은 시행되는 기간이나 정책의 강도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있는데, 척결대상이 되는 관료층의 놀라움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사정대상은 전국 각지의 모든 관료를 포함하고 금융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계도 망라하고 있다. 저우용강은 부패척결 시작 당시까지 국가안전부, 사천성, 에너지산업 등 부패의 “온상”을 장악하고 있었다.

부패척결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기업체는 물론 국유기업이지만,

다국적기업 또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중 제약기업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중국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밖에도 중국 관료들이 더 이상 선물과 뇌물을 받지 않는 바람에, 스위스 시계, 루이비통(LVMH), 레미 코잉트루(Remy Cointreau), 디아지오(Diageo) 등 사치품의 중국내 매출이 대폭 감소하였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은 너무나 많은 고위직원이 “雙規(기율위의 규정위반조사)” 대상이 되면서, 모든 고위관료가 매일 담당자에게 소재를 신고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만약 누군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기율위의 “雙規”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다음날부터 그의 직무는 사전 지정된 사람이 승계하게 된다.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은 상장회사 페트로(PetroChina)의 모회사이다.

이러한 모습은 기율위의 강력한 권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은 사법시스템에 속한 기관이 아니므로 형식상 구속 및 기소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8700만 당원 누구라도 구금해 조사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업무에 있어서, 기율위의 조사는 난폭하다고 비난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되며, 특히 낮은 직급 간부를 조사할 때 이런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초 이래, 각급 기율위의 조사를 받던 관료 중 70명 가까이 자살하거나 구금기간 중 사망한 바 있다.

그러나 왕치산이 이 기관의 수장이 되기 전까지 기율위의 명성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기율위야 말로 중국에서 가장 부패한 관료들이 모인 곳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기율위는 집권층이 합법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정치도구라고 여기기도 했다.

왕치산도 더욱 건전한 시스템을 수립해야 부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율위의 문제를 암시한 적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율위의 부패 척결 시행과 관련하여 언급하던 중에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러야 한다. 우선 지역적 문제 해결 위주로 진행하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왕치산이 기율위 서기로 임명되었을 때 북경의 일부 정치가들은 농담 삼아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과거 수십년동안 많은 고위 정치가들의 자녀들이 거대한 재산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진지하게 이 임명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왕치산이 어떤 계파 소속이 아니면서도 오랫동안 중국의 역대 최고위층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의 장인 야오이린(姚依林)은 1989년 천안문 탱크 진입을 결정한 고위간부 중 한 명이다. 왕치산의 “부마” 지위는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1990년대 중국 고위층의 호감을 얻고 중국공산당의 “소방대장”이라는 명성을 얻은 것은 주로 그의 탁월한 역량에 기인하고 있으며, 특히 그의 직언을 서슴치 않는 성품은 격려와 아침에 익숙한 체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행장으로 재직하면서 그는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합자하여 중국 최초의 진정한 의미의 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1990년대 말 그는 막대한 채무를 진 광동성국제신탁투자(Guangdong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 파산 처리를 지휘하였는데, 이 파산 사건에 관련된 자금 규모는 40억 달러에 달했었다.

2003년 북경에서 사스(SARS)가 창궐하자, 왕치산은 북경시장으로 급히 임명되어 이 위기를 처리하였다. 또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의 대응방안 수립을 지휘하는 중임을 맡았었다.

중국이 유럽 및 미국과 어려운 협상을 할 때면, 왕치산이 자주 중국측 대표를 맡아왔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국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를 즐겨본다고 말한 적 있는데, 케빈 스페이시(Kevin Spacey) 주연의 이 정치드라마는 심계를 동원한 권력투쟁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재정부장이던 헨리 펄슨(Henry Paulson)은 왕치산과 협력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또한 왕치산이 1998년 광동성 파산사건을 처리하던 당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에서 일하던 펄슨과 왕치산은 협력한 적도 있다. 왕치산에 대한 펄슨의 평가는 “집착이 강한 역사학자,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고, 약간 장난스러운 유머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2년 전 왕치산이 모든 공산당 고위층 동료들에게 알렉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명저 《구체제와 대혁명》(Ancien Regime and the French Revolution)을 추천한 것은 이러한 그의 개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왕치산의 오랜 친구들은 왕치산이 이 책을 추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개혁은 어찌면 예상 밖의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지만,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능 있는 통치자들의 목을 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다.